

2023 11
제226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02 좋은 글, 좋은 시

03 구정소식

04 걸어서 대덕속으로

05 [人터뷰] 송동호 어르신

06 [우리 지역 단체를 만나다] 청소년범죄예방 대덕구지구위원회

07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08 열린의정

10 책책책! 책을 소개합니다

11 2023 구민화합대잔치

12 대덕톡톡



* 대덕라이프에 게재되는 시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됩니다.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 : 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3년 11월 5일(제226호)

상반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완료

지역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8대·완속 충전기 29대 등 설치

대덕구가 상반기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구는 올해 2월 (주)에너넷과 협약을 맺고 지역 공영주차장에 급속 충전기 8대, 완속 충전기 29대 등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다.



상반기 설치장소는 △대덕산업단지(문평동80-1) △금강로하스 산호빛공원(석봉동780) △산중골(읍내동11-1) △회덕동(읍내동247-3) △읍내어울림(읍내동575-5) △한촌공원(중리동223-1) △중리만남(중리동180-1) △중리행복1길(중리동196-10) △중리구봉(중리동164-5) △송촌동진가쟁이(송촌동505-2) △송촌대양(송촌동487-1) △송촌 먹자골목(송촌동458) △송촌공영(송촌동487-1) △길치문화공원 공영주차장 등 14곳이다.

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관제 센터 운영, 긴급상황 시 즉시 출동이 가능한 유지보수망을 구축해 전기차 이용 구민의 편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공영주차장 5곳에 추가로 1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대덕구방문의료센터 해피엔딩돌봄건강학교 개소

방문의료서비스 제공·노인 친화 공간 조성...
복지사각지대 발굴 박차

대덕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의료지원센터와 해피엔딩 어르신돌봄 건강학교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덕구방문의료지원센터와 해피엔딩 어르신돌봄건강학교는 75세 이상 노인 중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어르신들의 중증화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노인 친화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조성됐다.

구는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지역 양방 의료기관 3곳과 한방 의료기관 6곳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문인력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 팀 단위 양·한방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는 대덕·중리·법동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거점복지관을 중심으로 해피엔딩 어르신돌봄건강학교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생활체육지도자가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를 돕고, 어르신들이 이웃과 어울리고 즐길 수 있도록 통합상담실과 힐링테이블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방문의료지원센터와 해피엔딩어르신돌봄건강학교 개소를 계기로 돌봄과 양질의 방문진료서비스를 확대해 어르신 행복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오는 12월 29일까지 복지급여 수급 자격 재정비

대덕구는 오는 1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재조사하고 복지급여액을 재정비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한다.

구는 총 2789건의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액이 증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3개 사업의 전체 수급자 8만 5615명 중 이번 조사로 영향을 받는 수급자 5268명의 변동 사항을 신속히 현행화하고, 사전 안내에 의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 복지 공백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제도적 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고, 다른 지원이 가능할 경우 해당 복지서비스에 연계하는 등 각 동주민센터 및 관련 복지 부서와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자의

경우 급여 중지는 물론 환수·제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실질적인 위기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환급 조회 카카오톡으로 확인하세요

‘대덕구 세원관리과’ 채널 개설...
향후 일대일 채팅방 운영 예정

대덕구가 납세자의 간편한 지방세 체납 및 환급 조회 처리를 위해 카카오톡 ‘대덕구 세원관리과’ 채널을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카카오톡 채널은 체납·환급조회가 가능한 위택스로 연계돼 본인 인증을 거치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는 체납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기존 방식에서 밀린 세금이나 과태료 정보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림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납부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1:1 채팅창을 운영해 납세자 입장에서 맞춤형 체납정리 및 주민의 알권리에 응답할 계획이다.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개관

1층 생활문화센터 · 2층 국민체육센터 등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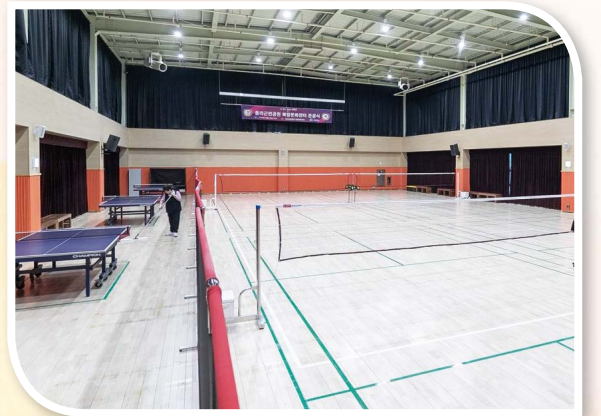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한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가 개관했다.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는 중리근린공원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2231.18㎡ 규모로 건립됐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2층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돼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층 가운데 작은 도서관에는 어린이 · 유아 · 일반도서 2700여권이 구비돼있어 주민들의 문화공간이자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리복합문화센터 작은 도서관의 경우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걸어서 대덕속으로

대전 대덕구에는 대청호, 계족산, 장동 휴양림 등 빼어난 풍광을 갖춘 관광자원이 많다. 여기에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인 유학의 대가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사상과 업적이 깃들어 있는 동춘당, 대전광역시 민속문화제 제1호 법동 석장승 등 문화재들도 즐비하다. 이에 대덕라이프는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옥류각(玉溜閣)

동춘당에 이어 동춘당생애길 두번째 장소로 계족산 등산로인 대전 대덕구 비래골길 47-73(비래동 467번지)에 위치해 있다.

옥류관은 원래 송준길(宋浚吉)과 그 문인들이 1639년(인조17년) 강학(講學)을 위해 세운 것으로, 골짜기에 ‘옥같이 맑은 물이 흐른다’하여 ‘옥류(玉溜)’라 지었다고 한다.

송준길 · 송시열 · 김경여 · 김익희 등의 문인이 수양을 쌓고 시문을 즐기던 곳으로, 1693년(숙종 19년)에 중수한 적이 있다. 건물 왼쪽의 암반에 새겨져 있는 ‘超然物外(초연물외)’라는 각자(刻字)는 송준길의 글씨라고 전해지고 있다.

1989년 3월 18일 대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옥류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인 단층 팔작지붕 건물이다. 계곡의 암반과 계류 사이의 바위를 의지해 서로 다른 높이의 기둥을 세운 다음 마루 틀을 짜서 하부구조를 조성한 것이 특이하다.

물이 흐르는 가파른 계곡 밑고 호쾌하게 서 있는 옥류각의 모습은 동적이며, 거침없고 자유스러워 보인다. 특히, 한여름 큰비가 온 뒤 골짜기에 계곡물이 흐르는 광경은 가히 절경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 · 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베푸는 노년(老年)이 아름답다

송동호 어르신

10여년전 동네 쓰레기 줍기로 봉사·기부 시작

어려운 이웃에 쌀 100포대 기탁·중학생에게 장학금 지급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아픈 역사 겪은 분들 위해 꾸준히 기부

송동호 어르신 “기부 그 자체가 사랑의 실천… 기부문화 활성화 기대”

다가오는 2024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아름다운 노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인간의 생로병사는 자연의 섭리인 만큼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도 움켜쥐려고만 했던 자신의 삶에 적잖게 후회한다고 한다.

삶의 끝자락에서 베풀고 봉사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나서며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만끽하는 어르신이 계신다.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사시는 송동호(87) 어르신이다.

필자가 인터뷰를 위해 송동호 어르신을 만난 것은 추석 연휴 직후 송촌동 한 골목에 있는 그의 부동산 중개인 사무실이다.

“최근 몇 년간 단 한 건의 매물 중개도 없는 강통 사무실입니다. 그저 동네 노인들이 소일하는 사랑방이지요”라며 멋쩍은 미소를 짓는 송동호 어르신의 손에는 자신의 공인중개사 상호가 찍힌 봉투에 넣은 양말 두 켤레와 인근 중국집 무료 식사권 2매가 들려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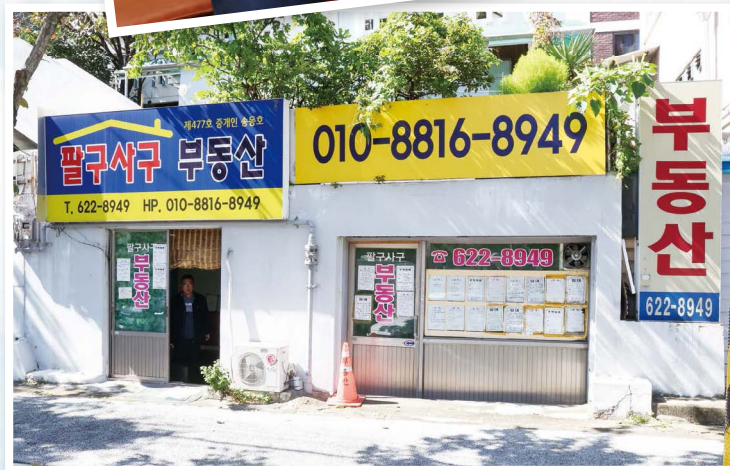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던 작은 선물을 필자에게도 전하고 싶었다고 하셨다. 세월의 흐름이 묻어나는 깊은 주름 사이로 따스함과 정이 물씬 배어 나오는 어르신의 모습이었다.

사실 송동호 어르신은 동구 가양동에 아내가 살고 있고, 아들과 딸 모두 대전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남은 여생 봉사와 나눔 등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혼자 이곳에 터를 잡고 사신다고 한다.

어르신의 봉사는 약 10여년 전 동네 환경미화부터 시작됐다. 환경미화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일요일 송촌동 골목길을 다니며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셨다고.

어르신의 이같은 조용한 선행은 점차 이웃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동네 사람들 스스로가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다.

그러던 중 송동호 어르신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자는 마음으로 금전적 기부에 나섰다. 지난 9월 추석에는 10kg 쌀 100포대를 송촌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의 행복한 명절을 격려한 바 있다.



또, 몇 달 전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학교 2학년 6명의 학생들에게 두 번째 걸쳐 각 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 매월 한 번씩 경로당 어르신 4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대접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특히, 10여년전 봉사와 나눔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한국 역사에서 큰 아픔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군 포로 희생자 및 유가족 단체에 50~100만원의 현금을 매년 기탁하며 후손들의 애국심 고취를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꾸준한 봉사와 기부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동호 어르신은 “주로 자녀들이 준 용돈을 모아 해결합니다.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돈 쓸 곳이 많지 않습니다”라며 “저 역시 어린 시절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힘이 되고자 한 일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그 날까지 (기부를)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작은 정성을 나누는 기부문화 조성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송동호 어르신은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에 나오시지 않는 어르신들이 더 힘든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라며 “행정기관은 물론 우리 모두가 이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나라, 사랑과정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송동호 어르신의 모습을 봤을때 ‘베푸는 노년(老年)이 아름답다’라는 문장이 떠올랐다.

나누는 삶, 베푸는 삶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송 어르신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배워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

용기와 희망 주는 청소년의 진정한 인생 멘토가 되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대덕구지구위원회

범죄예방위원, 촉법소년에 사랑으로 선도해 사회 복귀시켜
푸른꿈한마음 어머니봉사단, 밑반찬 나눔 · 생필품 지원도
청소년선도순찰대, 매월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 야간선도순찰 '앞장'
고상윤 회장 "사랑과 정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 위해 모두가 노력해주길"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이다. 하지만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듬어 각박한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적들을 만들어 가는 이들도 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씨앗들을 뿌려가는 단체가 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대덕구지구위원회(이하 대덕지구위원회, 회장 고상윤)이다.

대덕지구위원회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 산하단체로 법무부 훈령 제443호에 의거 조직된 민간 봉사단체이다.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을 세우고, 그를 실천해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 · 육성, 범죄 없는 세상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선도, 보호하는 것이 주 임무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고상윤(62) 회장이 이끄는 대덕지구위원회는 현재 1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주관 및 지도 관청에 따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푸른꿈한마음 어머니봉사단 △청소년 선도순찰대 등 총 3개 분야로 나뉘지며, 그 역할도 뚜렷하게 구분된다.

31명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예방위원은 엄격한 신원조사와 법무부 주관으로 6개월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위촉받을 수 있다.

예방위원들은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觸法少年)들을 6개월 동안 마음을 나누며 그들이 다시 학업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부모의 불화, 가난 등 불우한 가정환경이 가장 큰 이유라고.

고상윤 회장은 "사춘기 청소년들은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따뜻한

관심과 말 한마디에 새롭게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곤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예방위원들이 상담하며 돌봐줬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에 성공해 밝고 능률한 모습으로 찾아와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를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라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는 관심이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청소년범죄예방위원들은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장학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각종 캠페인,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푸른꿈한마음 어머니봉사단'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결연 청소년가정에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사랑과 정성을 담은 밑반찬과 생필품 지원 활동을 펼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덕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이 생각보다 많아 고상윤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들이 십시일반 사비를 보태고 있다. 또, 일 년에 한 번 결연 청소년, 기소유예 청소년들과 문화체험 및 역사탐방을 함께 하면서 엄마의 품 같은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 밖에 청소년선도순찰대는 대덕구, 대덕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월 2~3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역을 찾아 야간선도순찰 활동을 펼치며 학생들의 교외 생활지도를 돕고 있다.

"사실 역으로 말하면 우리 같은 청소년 선도 · 보호단체는 점차 없어져야 합니다. 그만큼 사랑과 정이 넘치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의미지요"라며 "그런 사회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돌봐주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칼국수와 굴이 펼쳐낸 맛의 향연

석봉동 '광장굴칼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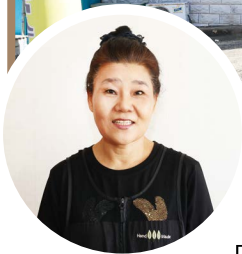
- 대전 대덕구 석봉로57번길 40 1층 / 0507-1352-1433
- 굴칼국수 8000원, 굴무침 1만5000원, 굴전 1만5000원
- 영업시간: 11:00-20:00(매월 1, 3주 월요일 휴무)

깊어가는 가을, 일교차가 큰 탓에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찬바람이 부는 11월이면 굴의 계절을 맞아 굴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곤 한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역 뒤편 언덕배기에 위치한 광장굴칼국수(대표 장성애)는 청정 남해의 맛과 향, 영양을 담백 안은 통영 햇굴을 사용해 굴칼국수(보통·특), 굴무침, 굴전 등을 팔고 있다.

이곳은 가격도 8000원~1만5000원 선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장성애 대표는 결혼 후 40여년 넘게 신탄진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 이곳이 제2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녀는 우연한 계기로 음식점 운영에 뛰어들었으며, 어렸을 적 자주 먹었던 굴

칼국수를 주저 없이 선택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만을 사용한다고 한다. 특히, 주재료인 굴은 통영산만을 고집한다. 통영산 굴은 청정해역으로 평가받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지정한 2곳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라고. 이곳의 굴칼국수는 칼칼하고 매콤하면서도 개운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멸치와 표고버섯 등을 넣어 우려낸 기본 육수를 바탕으로 대파, 고추 등 갖은양념에 옹골차고 싱싱한 굴을 넣어 든든하고 시원한 맛을 자랑한다. 또, 칼국수 면은 24



시간 저온 숙성시키고, 날씨에 따라 물의 비율을 다르게 해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갖도록 만든다.

이 밖에 칼국수에 빠질 수 없는 김치와 깍두기 등도 야채를 직접 농가에서 공급받아 매일 만들어 신선한 맛을 유지한다.

장성애 대표는 “코로나19 시작 무렵 이곳에서 재개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둔산동, 가오동 등 먼 곳에서 온 젊은 손님들이 음식을 맛보고 다시 찾아 주시곤 합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라며 “앞으로도 맛있고 정성스러운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호텔식 짬뽕을 맛볼 수 있는 중식당

석봉동 '소니가짬뽕'

- 대전 대덕구 석봉북로24번길 6 / 042-932-6364
- 소고기짬뽕(대표 메뉴) 1만원, 자장면 7000원, 황제짬뽕(빨강)·황후짬뽕(하얀국물) 8000원
- 영업시간: 11:00~20:30(15:00~17:00 브레이크 타임) /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빨간 국물에서 담백한 맛을 느끼는 건 신선하게 다가오는 반전 매력이 아닐까. 깔끔하면서도 입맛이 당기는 얼큰하고 진한 국물 맛을 놓치지 않는 짬뽕 전문점이 있다. 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시장에 위치한 '소니가짬뽕(대표 이양구·이미란 부부)'이다.

음식점 문을 열고 가니 출입문 바로 앞에 설치된 오픈 주방이 범상치 않았다. 기름때·찌든 때 하나 없이 청결한 주방 안에서는 위생모와 앞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쉴 새 없이 재료를 볶아내는 이양구 대표의 워질 소리만 들렸다.

이 대표는 대학에서 호텔조리과를 전공하고 서울



특급호텔에서 10여년, 대전 유명호텔에서 6여년간 일한 베테랑 호텔 요리사 출신이다. 이후 현재의 자리에 '소니가짬뽕'을 연지도 6년이 지났다고 한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소고기짬뽕'이다. 이 대표만의 비법이 담긴 기본 육수에 차돌양지를 사용해 개운하면서 기름진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해산물, 야채가 들어가면 구수하면서도 입맛이 당기는 얼큰한 국물이 완성된다. 면 역시 주문과 동시 직접 손으로 뽑아내 물리지 않고 계속 당기는 맛이였다.

중화요리 경력 20여 년이 넘는 이양구 대표는



확고한 경영 철학 하나가 있다고 한다. 절대 배달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배달이 분명 돈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배달하는 시간동안 음식 본연의 맛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점심시간이면 적잖은 웨이팅을 감수해야 할 정도로 성업 중인 '소니가짬뽕' 이양구 대표.

그는 도다리, 달래, 땅콩, 홍어 등 계절마다 색다른 재료를 활용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짬뽕의 맛을 선보이고 싶다는 목표를 슬며시 내비쳤다.

음식에 진심을 담아 요리하는 이 대표의 꿈이 조만간 현실이 되길 기대해 본다.



대덕구의회, 지역 활성화 아이디어 톡톡

고향사랑 · 공원사랑연구회, 정책 개발 연구용역 결과 발표
각각 대덕형 고향사랑기부제 · 명품공원 조성 전략 제시해



대덕구의회(의장 김홍태)가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톡톡 튀는 구상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구의회 고향사랑연구회(회장 김기흥)와 공원사랑연구회(회장 양영자)는 지난 9월 25일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정책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에 나섰다.

우선, 고향사랑연구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부제 기금 활용 사업을 소개했다.

기금사업 가운데 산과 물이란 지역 환경적 특성을 살린 바둑전용경기장 조성과 드론 활용 체류형 관광사업이 눈길을 끈다.

바둑전용경기장은 대덕구를 '바둑의 메카'로 조성해 바둑애호가 등으로부터 관심과 기부를 이끈다는 전략이다. 드론 체류 관광의 경우 지역 환경을 활용한 드론 촬영과 드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이다.

연구회는 대덕구를 반려견 친화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획도 선보였다. 대형동물병원 유치, 반려동물 장례식장 설립 등을 통해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 애호가로부터 대덕구를 향한 기부 동기를 유발시키고, 관련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대덕' 이미지 확산 △대덕구 캐릭터 (덕구 · 더기더기) 활용 △친환경 모델 도시 조성 △지역사업체 협력 관광 모델 개발 등 다양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을 제안했다.

이어 공원사랑연구회는 이용자 중심의 개선을 통한 도시공원의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 전략 가운데 편의성 개선과 주제 정원 조성을 통한 신탄진수변공원의 명품공원화가 주목할만하다.

연구회는 이를 위해 파손 보행로 등 정비, 휴게 · 운동시설 조성, 범죄 예방 등을 위한 LED 조명 설치 등 편의성 제고와 함께 팔레트 · 황토 · 익스트림 스포츠 · 심나무 등 네가지 테마의 특화형 정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 내 다른 수변공원을 대상으로도 △미디어파사드 △나룻배체험장 △포토존 △그늘그네 △미디어음악분수 △물놀이장 등을 조성하는 한편, 수상레포츠 · 수상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이밖에 명품공원 조성을 위해 '어르신 돌봄 놀이터'도 소개했는데, 노인들이 도시공원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 시설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고령자용 운동기구 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홍태 의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에 나서겠다"면서 "앞으로 더 폭넓고 깊은 정책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대덕구'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 개발 연구용역은 지난 6월 21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3개월간 이뤄졌다.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대덕구의회는 지난 9월22일 추석을 앞두고 지역 노인주거복지시설 위문을 위해 '광염 이웃사랑의집'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만민의 집'을 각각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부평구의회와 지역 현안 교류 간담회

대덕구의회는 지난 10월4일 대덕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을 방문한 인천 부평구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관련 소통을 비롯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소통 강화 위한 홍보플랫폼 추진

대덕구의회는 지난 10월16일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플랫폼 조성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세종시 의회와 충북도의회를 찾아 의회별 홍보우수사례 등을 살폈다.



구의회 홍보

예결특위원장에 양영자 의원 선임

“내실 있는 심사로 누수 없게”...부위원장에 유승연 의원



양영자 의원

대덕구의회는 지난 9월20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영자 의원을 예결특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임기는 1년이다. 양 의원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로 혈세에 누수가 없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예결특위는 부위원장에 유승연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는 첫 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해 심사했다.

기고

북대전 악취문제 이대론 안돼



유승연 의원

악취문제는 소음이나 빛 공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편이며, 해결책도 까다롭다. 악취란 자극성이

‘24시간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악취 취약지역 순찰·악취 민원 처리 등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대덕산단이 위치한 목상동 일대 북대전 권역 주민들은 악취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선 원인 의심 시설과 주민 간 불신만 초래할 뿐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예방을 위해선 실태조사가 급선무다.

두 번째,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조례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전국 50개 악취관리지역 중 36개 지역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일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대전시에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대전시 악취관리시스템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실시간 악취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지점 및 주요 도로에 전광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악취관리를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악취문제도 관련 기관과 기업, 주민이 모두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다. 단속과 행정처분이라는 일시적 방편보다는 근본적인 악취 개선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 노력, 대전시의 기술지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있는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여러 성분이 혼합된 냄새를 말한다. 종류가 다양하고 같은 농도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 지속시간이 짧아 측정하는 시점에서 악취가 사라진 뒤인 경우가 많아 역학조사 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현재 전국 50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특별관리되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등 두 곳이 악취관리지역에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악취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표면상론 문제가 없어 보인다.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악취관리지역 복합·지정악취 실태조사(2023년 하반기 1차)’ 결과를 보면, ‘악취방지법’ 상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점검했을 때,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도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의 신고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 대전시 ‘악취관리시스템’을 보면, 북대전 권역 악취 농도는 대체로 양호(파란색) 상태로 조사되지만, 같은 시스템상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모니터링’에선 가장 강한 강도인 ‘참기 어려운 취기(5)’로 표시된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2월 열린 ‘북대전 악취 영향지역 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에서도 시민대표들은 악취 저감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이 있지만,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악취 저감 정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 통계자료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악취문제 원인 파악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민들이 악취 저감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북대전 일대 악취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악취 원인이

사서의 소소한 책 꾸러미 ‘사소한 책’

11월 주제

가을을 보내는 방법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그저 읽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마음 속 노래들.
깊어지는 가을별 아래 포근함과 새로운 감동을 만나보세요.



꿀랑 그제 행복이라고
/ 구용근

평범한 무명 시인의
진솔한 정형시. 산길에서
우연히 만난 뜻밖의
웅달샘 같은 감수성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질박한 언어로
묘사하는 운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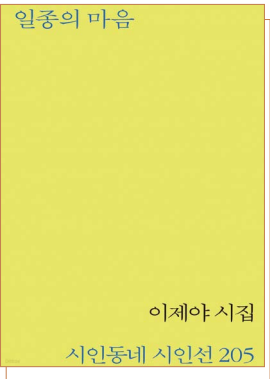
지금처럼 그렇게
/ 나태주

94살 화가 김두엽
할머니의 그림에서 받은
영감으로 만든 시화집.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먼저 품고 사랑하라고,
그저 지금처럼 정답게
예쁘게 살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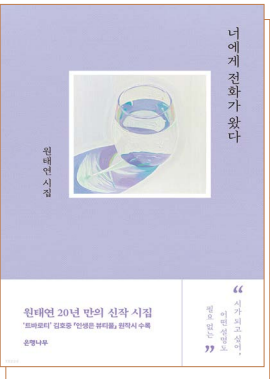
이해인의 햇빛 일기
/ 해인

‘위로 시인’이자 ‘치유
시인’으로서 아픈
이들에게 건네는, 가을
햇살처럼 따스하고,
반짝이는 진주처럼
맑게 담긴 백 편의 시가
담겨있다.



일종의 마음
/ 이제야

‘어쩌면 나에게만 슬픔일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 보편적인
매일의 이야기’로 이름
지어지지 않은 마음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곁을 준
기록들.



너에게 전화가 왔다
/ 원태연

국내 최고 발라드 가수들의
사랑 노래를 작사한 시인이
써 내려간 감성 시집.
“나는 머물기 좋은
장소입니까” 물음으로
시작해 성숙해가는 사랑과
성찰의 시간.

* ‘사소한책’은 대덕구 도서관 사서들이 매월 주제를 선정해 관련도서를 추천합니다.



“내년 10월에 만나요”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임시휴관

지난 29년간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학습 등의 활동을 지원한 안산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11월 1일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11개월간 임시휴관에 들어간다.

1994년 처음 개관한 대덕구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안산도서관(대덕구 법동, 1944㎡)의 노후시설과 내부 공간을 개선해 도서관을 찾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한다.

안산도서관은 내달 착공해 2024년 8월 준공·10월 재개관을 목표로 하며,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상 3층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창호 및 친환경 냉난방기(GHP) 교체 △가족·개방형 자료실 구축 △북카페 및 문화예술공간 조성 △동아리실 등 주민 자율이용공간 확대 △화장실 등 공용 편의 공간 개선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도서관 사무실 이전 및 공사 중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관 기간 중 도서관 전체 시설 및 서비스가 중단된다.

도서대출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능하며, 관내상호대차서비스는 오는 10월 20일, 예약 및 책바다,

책나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휴관기간동안 불편하시더라도 대덕구 인근 도서관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

이른 시일 내에 변화된 도서관으로 재개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덕구민 화합의 장'

대전 대덕구, '2023년 구민화합대잔치'성황리 마무리
구민 2000여명 모여 12개 동 대항 경기·장기자랑 등 화합의 장 마련



지난 10월 14일 대청공원 동편광장에서 대덕구민이 함께 소통하고 다 같이 하나되는 '2023년 구민화합대잔치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역 12개 동 주민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각 동 선수단 집결을 시작으로 개회식에서 대덕구민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대덕구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민을 발굴해 구민들의 귀감으로 삼고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된 상이다.

이번 제8회 대덕구민대상 수상자는 △지역발전부문 장용봉 △사회복지부문 김형식 △문화예술부문 강구철 △체육진흥부문 박영희 씨이다.

장용봉씨는 비래동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성공적인 주민총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 추진했으며, 숲속힐링음악회 개최, 비래동 대표 마을축제 기획 및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썼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복지향상에 힘썼다고 평가받았다.

김형식씨는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장으로서 노인복지사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생활 안정 지원, 대덕구 북부노인복지관 개소, 노인 일자리·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구철씨는 꾸준한 작품 전시회를 통해 대덕문화예술 발전 이바지와 인프라가 부족한 대덕구에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영희씨는 대전북부 새마을금고 탁구클럽 관장을 맡은 후 리더십을 바탕으로 동호회 활성화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한 바, 구민들의 체육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받아 이번 구민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12개 동 대항 협동 경기는 비전탐세우기, 줄다리기, 바람잡는 특공대, 명랑계주 등 이색 요소들을 가미한 종목을 선정해 구민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12개 동에서 끼 있는 구민들이 노래와, 춤 실력을 뽐냈으며, 가수 조정민이 축하공연을 펼치는 등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날 동 대항 경기는 종합 1위 중리동, 2위 송촌동, 3위 대화동이 각각 차지했다.

내년에도 모든 대덕구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구민화합대잔치가 열릴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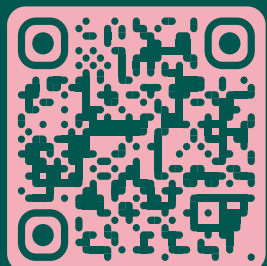
하늘에서, 땅에서 바라본 대덕

2023년 대덕구 사진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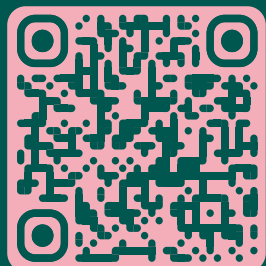
접수기간 11. 29.(수) 18:00까지



공모내용



유의사항



공모내용 대덕구를 일반 카메라 혹은 드론으로 찍은 사진

응모자격 전 국민 누구나(단체제외)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jbr0515@korea.kr)

시 상 금 총 700만원

문의사항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042-608-6533)

우리 동네 걷기 좋은길 다함께 걸어요

법1동 걷기 동아리 모집

모 집 상시

대 상 걷기에 관심 많은 법1동 주민 누구나(최대 15명)

활동기간 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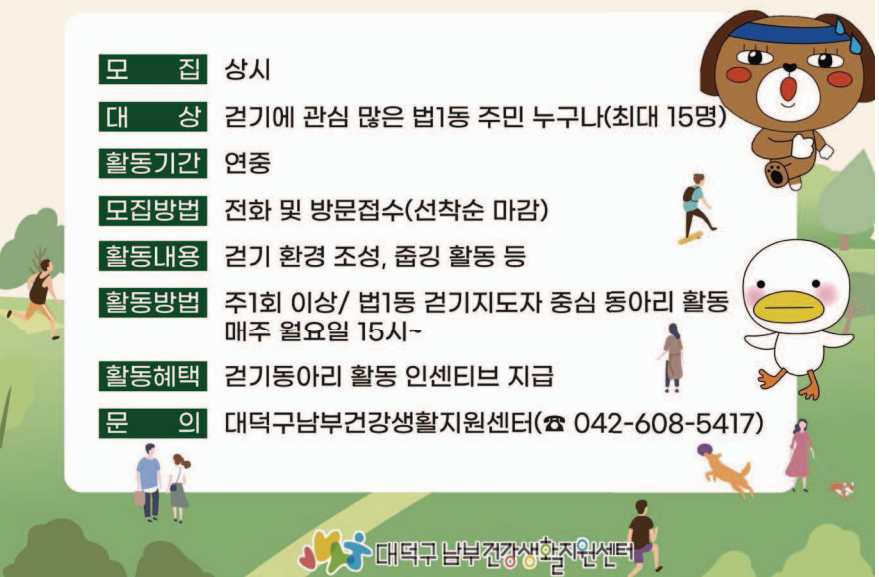
모집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선착순 마감)

활동내용 걷기 환경 조성, 줌깅 활동 등

활동방법 주1회 이상/ 법1동 걷기지도자 중심 동아리 활동
매주 월요일 15시~

활동혜택 걷기동아리 활동 인센티브 지급

문 의 대덕구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 042-608-5417



오정지역공헌센터를 소개합니다

오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오정지역공헌센터(오정 상생하우스)가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합니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일부 공간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위 치	오정동 443-13번지 일원
규 모	지하1층~ 지상3층
무료 개방 공간	지하 1층 교육장(74㎡), 지상2층 소회의실(2실, 63㎡)
예 약	오정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 ☎042-623-8830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돌려드립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23. 3. 5.)전
유료 접종 으로 실시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

대 상	접종 당시 대덕구 거주(주민등록지 기준)주민 중 셋째아 이상 및 다둥이 영아	
내 용		
백신명	지원한도	
로타릭스	150,000원 *2회	최대 300,000원 / 1회 한도
로타텍	100,000원 *2회	

신청기간 2023. 10. 4.(수) ~ 12. 22.(금)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진료비영수증 ③ 보호자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⑤ 통장사본 ⑥ 필요 시 기타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 자세한 사항은(대덕구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참고

문의전화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팀 ☎042-608-5484



올해도 꼭!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하세요! +



	대 상	접종기간
어르신	75세 이상 (1948. 12. 31. 이전 출생자)	2023. 10. 11.(수) ~ 2024. 4. 30.(화)
	70~74세 (1949. 1. 1. ~ 1953. 12. 31. 출생자)	2023. 10. 16.(월) ~ 2024. 4. 30.(화)
	65~69세 (1954. 1. 1. ~ 1958. 12. 31. 출생자)	2023. 10. 19.(목) ~ 2024. 4. 30.(화)
어린이	생후 6개월 ~ 13세 ※ 예방접종 일정 및 회수 예진의사와 상담 필요 (2010. 1. 1.~ 2023. 8. 31. 출생)	
	2회 접종 대상자	2023. 9. 20.(수) ~ 2024. 4. 30.(화)
	1회 접종 대상자	2023. 10. 5.(목) ~ 2024. 4. 30.(화)
임신부	임신 여부를 확인한 임신부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소지)	2023. 10. 5.(목) ~ 2024. 4. 30.(화)

내 용 인플루엔자 4가 예방접종 1회 무료
(단,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회)

장 소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